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 사회복지

불교계가 IMF관리체제 하에서 실직노숙자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종교적 사회참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평가받았다.

최근 기세가 높아지는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복지자원을 다원화하고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 동원의 양을 늘려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활성화에 이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종단별 산하 복지관과 본·말사 등 기초 단위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의 내용과 총량에 대한 구체적 조사(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추진중)가 이뤄지지 못했을 정도로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 활동이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불우이웃 돕기, 시설방문 지원 및 노력봉사 등 일시적이고 응급 조치적 특성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입양이나 장애인 재활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각 불교 종단 산하 복지관 및 사찰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연계활동도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불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불교적 포교 방안'이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소한 종단 예산 규모의 10%를 사회복지비로 책정, 사회복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원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들에게도 복지사업이 보살행의 구체적 실현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간병·장의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등 불교자원봉사의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중의 하나이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 생명나눔 7월 대법회

현철·화장 유언 사후정기기증 서약

- 1차: 7월 11일(일) 오전 10시 봉토사 유언회
- 2차: 7월 17일(토) 오전 10시 서울 송가사
-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2)734-8950

## 교계 토론문화 정착

### 공청회-포럼 을 10여차례...에년의 두배

#### 사부대중 의견 수렴...참여자 수준향상 '숙제'

불교계에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열린 공청회와 포럼은 모두 10여차례, 여기에 조계사 성역화 공청회 등 7·8월에 예정된 공청회만 해도 3건에 이르는 등 사부대중의 의견수렴과정이 민주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8년과 97년에 열린 각종 공청회와 포럼이 각각 13회, 8회 정도였던 사실에 비하면 매우 격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포교원은 신도관련 종법 제·개정안을 놓고 지난달 신도단체, 불교대학대표자, 본말사 주자를 대상으로 연이어 공

청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0일 종합공청회를 연다. 사찰환경보존위도 8월말 '환경친화적인 사찰 만들기' 공청회를 연다.

특히 공청회나 포럼이 종단이나 종책과 관련한 부분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교계 복지시설 전산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초청해 지난달 말 공청회를 열었으며,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도 오는 9월 창립에 앞서 바람직한 운동방향을 목적으로 한 토론회 및 지역 간담회를 8월말 열기로 했다.

이같은 토론문화는 민주적인 결정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보니 난상토론이 돼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영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노출되고 있으며, 말대포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교계 전반의 평가점수는 후하다. 새시대불교포럼 대표 박승원씨는 "토론문화의 정착은 불교가 한층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원우·한명우 기자

## '습의' 통일교본

### 조계종 발간키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습의(習義)를 통일하기 위한 종단차원의 습의교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임면)은 1일 해인사에서 열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단의 종진스님들과 대중의 의견을 모아 통일된 습의교본을 발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위원장 정기연찬회 및 습의와 예참의 전승(습의사 과전)에 따른 지원 등 원장 육성정책도 논의됐다.

또 제17기 행차교육원에 습의사 3인을 파견하기로 하고, '습의사의 올바른 지도방법'을 주제로 한 습의사 간담회(8월9일 예정)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 '고승기념메달' 1차분 세트 출시

한국조계공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는 20세기 고승 여덟분의 기념메달 1차분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500개 한정으로 출시되는 이 메달세트를 소장하셔서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한국조계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해 품질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가격: 날개 각 5만원 · 8분 세트 40만원(500개 한정)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협 053-01-236053

※고승 여덟분 세트는 부피가 정중하여 안전하게 발송하기 위해 포장 작업을 철저히 하는 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3~5일 늦게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관련기사 4면)

## 원불교 종단협 재가입

### 고산스님 제안...이달중 양측 만나 절차 협의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조계종총무원장)과 원불교 이광정 총법사 간에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 논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산스님은 6월 14일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 조계종 교정위원장 만나 "원불교가 종단협의회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16일 이광정 총법사(불교의 중정어해당) 초청의 종교지도자 오찬 자리에서도 고산스님이 이 총법사에게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스님의 이같은 제안은 KNCC와 천주교 서울교구를 방문하며 강조했던 종교간 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고산스님은 두 곳을 방문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화합해야 국민들도 화합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법무실은 "고산스님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 총법사가 교정위원장 등에게 종단협의회 가입을 하명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도 "잘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우리 아이 좋은 곳에 가게..."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합동조사에 참여한 불교계 인사들이 만나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종단협의회와 원불교측은 이달 중 핵심있는 인사들이 만나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종단협의회와 원불교측은 이달 중 핵심있는 인사들이 만나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 "경내지 확대 수행환경권 보호"

### 조계종, 전사법 개정안 마련 문화부와 협의

건국법 8조4항(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의 삭제에 따라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기획실(실장 만성)은 건교부가 건국법 재개정을 완강히 반대함에 따라 우선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의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하는 내용의 전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경내지'에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전래의 풍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 금지행위에 '전통사찰 보존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계종은 국회정각회 등을 통한 의원발의로 전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은 기자

보호와 존엄 및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래의 풍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 금지행위에 '전통사찰 보존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계종은 국회정각회 등을 통한 의원발의로 전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은 기자

## 구산선문 참선 기행

### 7월: 동리산문(태안사)·화엄사·천은사

7월에는 적인선사 해탈(785~861)에 의해 개창된 동리산문의 중심도량 태안사를 찾아가겠습니다.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청정 수도승들이 고귀한 승결로 선법을 전하여 현재에도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태안사에서는 옛누각인 능파각을 비롯해 적인선사조룡정탑(보물 제273호)과 공자대사부도(보물 제274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광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사자상승석탑(국보 제35호)으로 유명한 화엄사에서는 불교의 으뜸 사상으로 꼽히는 화엄 사상의 승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천은사도 함께합니다

◆출발: 7월 2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opia.com)에서 보세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 향기가 있는 책! 느낌이 있는 책! 전혀 다른 책!

### 차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

정승석 지음 (동국대 교수)

사람들은 불교교리가 난해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할 교리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어디 이것뿐이라. 세상살이의 매사가 그러하다. 차기가 끓꾸어 온 인생의 목표라는 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멀어져 간다. 좀더 낮추어 새로운 꿈을 그려 보지만 그것 역시 실패한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는가? 꿈은 꿈대로, 현실은 현실에서 만족하는 것이 상책이다.

신간!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최근 학술서 신간

민족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 민족사 학술총서

최고로 권역된 韓門(韓門) 韓國의 선사상을 알목요연하게 대표하는 韓의 古史!

신국판 번역권 값 23,000원/복간 영인본 값 18,000원

상승서 권(동국대학교 교수)

### 불전해설사전

종교의 중요한 경전과 인도의 고전, 그리고 중국·한국·티베트·일본의 불교문헌 등 총 308종의 중요 불교 문헌을 해설 신국판 값 17,000원

주희의 스님 커(동국대학교 교수)

### 학엄경사상연구

학엄경의 중요사상과 각 품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 정리한 국내 최초의 학엄경 연구서! 신국판 값 28,000원

주희지(동국대학교 교수)

### 유식학개론

적당하고 어려운 유식학을 알기 쉽게 분석·정리, 설명한 유식학의 새로운 개론서! 신국판 값 5,500원

연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정태혁 / 35,000원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한기은 / 27,000원  
 한국 불교문학의 연구 이진호 / 19,000원  
 한국 불교사상의 전개 한중만 / 18,000원  
 원효의 화쟁논리 佐藤繁樹 / 25,000원  
 신라불교 여래정사상 연구 이명태 / 15,000원  
 불교사상사론 김영태 / 25,000원  
 무어윤의문제의 연구 윤호진 / 9,000원  
 신라불교사상사 연구 김영이 / 14,000원  
 진경국사의 오선록 허흥식 / 15,000원  
 신라 초기불교사 연구 신종원 / 8,500원  
 신라 학업사상사 연구 김상현 / 8,000원

의상학업사상사 연구 권해주 / 8,500원  
 대승기신론사상 연구 박태원 / 8,500원  
 연도의 어원론과 불교 정승석 / 8,000원  
 한국불교 승전문학의 연구 김승호 / 8,000원  
 신라 선종의 연구 정성본 / 12,000원  
 고려무인정권과 불교계 김광시 / 12,000원  
 깨달음, 禪의어깨어깨어깨 강건기 외 / 9,000원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정성본 / 20,000원  
 삼국시기 전기론 이강래 / 15,000원  
 영동고승전 韓의어깨어깨어깨 강희우 / 14,000원  
 신라표현의 학업학 최규찬 / 20,000원  
 학업경문의 요점문답 김현학 / 22,000원

### 한국근대불교사연구

### 한국근대불교의 현식인식

두 권 모두 1900년대 초 개화기와 식민시대, 그리고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불교의 면면을 상세히 연구한 책이다. 김광시 저 값 19,000원 / 값 15,000원

신라 원효의 大覺度師(大覺度師)에서 한말 覺師의 覺師 判釋에 이르기까지 고전 117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한 한국불교 연구의 기본서! 김명태 저 (동국대학교 교수) 신국판 값 14,000원